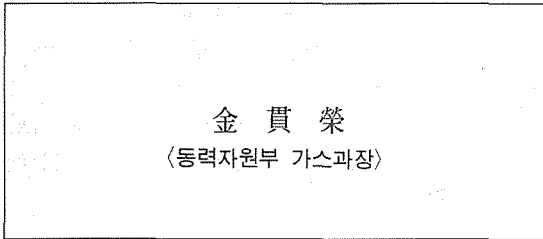


은 용도로 사용되는 燈油소비량의 15%에 불과하던 것이 1986년도에는 오히려 프로판소비량이 燈油보다도 더 많아져서 燈油소비량의 119%나 되도록 급신장하였으며, 승용차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은 역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揮發油소비량의 24% 이던 것이 1986년도에는 무려

가스事業의 추진현황과 방향



金貫榮
〈동력자원부 가스과장〉

I. 머리말

1976년도에 140千톤으로 국내總油類수요의 1.3%에 불과하던 가스수요가 연평균 27.2%씩이나 증가하여 10년이 지난 1986년도에는 약 11배가 되는 1,520千톤에 이르러 總油類수요의 8.4%를 차지하게 되었다.

油種別로 살펴보면, 家庭·商業부문의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은 1976년도에 역시 家庭·商業부문의 같

95%나 되도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의 국내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여건의 변천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구조가 石炭에서 石油로, 石油에서 가스 및 原子力등으로 에너지源의 소비패턴이 변화해 오면서 가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1970년대(1970~1979)에 연평균 25% 증가한데 이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1980~1986) 연평균 27%의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이다(〈表-1〉 참조).

이렇게 가스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가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政策比重이 높아지게 됐음은 물론 수급, 가격 및 안전관리, 유통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개선대책이 요구되게 되었는데, 즉 가스수요증가에 따라 LNG도입이 필요하게 되어 LNG 사

〈表-1〉 石油對比 가스수요 증가추세 비교

(단위: 千배럴(千톤))

		1970	1976	1979	〈70-79〉	1980	1986	〈80-86〉	〈76-86〉
석유소비량		62,702	119,710	185,377	12.8%	183,498	209,612	2.2%	5.8%
가스소비량		446 (37)	1,591 (140)	3,332 (289)	25.0%	4,500 (392)	17,693 (1,520)	25.6%	27.2%
가정용	프로판	370 (20)	557 (45)	1,557 (126)	17.3%	1,963 (159)	9,533 (770)	30.1%	32.8%
	등유	3,015	3,666	9,011	12.9%	8,350	7,985	△ 0.7%	8.1%
차량용	부탄	76 (7)	1,034 (95)	1,775 (163)	41.9%	2,537 (233)	8,160 (750)	21.5%	22.9%
	휘발유	5,170	4,272	8,633	5.9%	7,019	8,557	3.4%	7.2%

업 및 도시가스사업이 수립·시행케 되었으며, 국내생산 LPG로는 수요대비 절대물량이 부족하게 되어 해외로부터의 LPG輸入이 原油 못지 않게 중요한 에너지源 확보 정책으로 대두되었으며, 수입물량의 인수 및 저장을 위하여 大型LPG引受基地가 건설되기 시작됐으며, 늘어나는 가스사용에 대비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LPG비축 추진과 안전관리,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체계등 일련의 가스사업을 위한 각종 정책이 세부적으로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1990년대에 펼쳐질 우리나라의 가스화時代에 대비하여 최근에 진행되어가는 가스보급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간략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가스事業의 추진현황과 전망

1. 추진현황

(1) 1986년도 가스수급실적

1986년도의 가스소비량은 LPG 1,520千톤과 LNG 117千톤으로 합計 1,637千톤에 달하였다. LPG소비는 국제原油價 하락세에 따른 LPG가격의 하락으로 86년 초 3차에 걸친 국내 LPG가격 인하조정(1월9일, 2월20일, 3월30일)에 힘입어 85년도의 전년대비 16% 증가보다 85대비 23% 증가된 1,520千톤이나 소비되어 그동안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던 LPG소비가 다시 급증추세로 전환되게 되었다.

LPG중에서도 특히 가정·상업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이 취사용연료의 가스화현상 지속으로 전년대비 34% 증가되어 770千톤에 달하였으며, 주로 영업용택시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은 자가용승용차 증가, 지하철완공등으로 택시증차가 한계에 달하게 되어 85년도부터 10% 내외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LPG消費量중 프로판과 부탄의 수요구성비는 51:49로서 프로판이 드디어 부탄수요를 앞지르게 되었는데, 이는 70년대초(1970~1973)에 프로판이 부탄보다 잠깐동안 우위에 있었던 이후로 74년 이래 처음으로 수요구성비가 바뀐 것이다.

또한 공급측면에 있어서 국내생산대비 輸入은 56대44로서 아직도 국내생산량이 절반을 넘고 있으나, 이는 精

油社의 投入原油 輕質化, 임가공 LPG殘留 및 LPG回收施設등의 新·增設에 따른 영향이라고 하겠다.

LNG는 86년 4/4분기에 시운전용으로 2카고分인117千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처음 도입되어 평택 引受基地 및 平澤과 仁川의 火力發電所시운전용으로 일부 사용되어 우리나라 에너지史에 LNG가 出生신고를 하게된 역사적 時點의 의미를 부여케 되었다.

(2) 1987년도 가스수급전망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스수급은 1986년도까지는 LPG 위주로 보급되어 왔었으나 1987년도에는 LNG가 본격적으로 도입, 사용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天然가스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가스수급도 LPG와 LNG가 쌍벽을 이루게 된다.

1987년도의 가스需給計劃은 수요가 3,479千톤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되겠으나 生産은 990千톤에 지나지않

〈表 - 2〉 1987년도 가스需給計劃

(단위: 千톤)

		86실적 (추정)	전년대 비(%)	1987년 (계획)	전년대 비(%)
L.P.G.	수 요	1,520	23.2	1,810	19.1
	생 산	855	29.0	990	15.8
	수 입	665	9.6	850	27.8
L.N.G.	수 요	117	—	1,669	—
	생 산	—	—	—	—
	수 입	117	—	1,669	—
計	수 요	1,637	32.5	3,479	112.5
	생 산	855	29.0	990	15.8
	수 입	665	9.6	2,519	278.8

〈表 - 3〉 油種別 수급계획

(단위: 千톤)

	연초 재고	수 요	공 급			연말 재고	
			생 산	수 입	계		
LPG	프로판	25	1,000	285	745	1,030	55
	부 탄	45	810	705	105	810	45
	計	70	1,810	990	850	1,840	100
L N G	62	1,669	—	1,669	1,669	62	
計	132	3,479	990	2,519	3,509	162	

〈表 - 4〉 연도별 LPG수요 증가推移

(단위: 천톤)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전망)
프 로 판	241 (26.8)	319 (32.4)	428 (34.5)	547 (27.8)	770 (40.8)	1,000 (29.9)
부 탄	399 (66.3)	550 (37.8)	634 (15.5)	687 (8.2)	750 (9.2)	810 (8.0)
計	640 (48.8)	869 (35.8)	1,063 (22.3)	1,234 (16.1)	1,520 (23.2)	1,810 (19.1)

註: ()는 전년대비 증가율(%)

아 輸入充當이 2,519천톤에 이를 전망이다.

가. LPG需給

〈需 要〉

1987년도의 LPG수요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증가 및 공해방지를 위한 家庭燃料의 고급화현상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약 1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油種別로는 프로판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가스燃料化 추세로 30% 증가되어 1,000천톤에 달하고, 부탄은 86년도에 아시안계임으로 LPG택시가 약 1만대가 기증차되어 87년도에는 약 7천 대밖에 증차되지 않을 전망이므로 수요증가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약 8% 증가된 810천톤에 달하며, LPG 택시 대수는 86년말 109천대에서 87년에는 116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生 産〉

국내 LPG생산량은 石油製品 수요증가에 따른 原油投入量의 증가, 輕質原油도입, 임가공추진 등으로 87년도에도 전년대비 약 16% 증가된 990천톤에 이를 전망이나 국제원유가격의 회복세에 따라 輕·重質原油의 가격 추이변화에 精油社가 原油도입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 예상되므로 LPG 생산량은 많은 증감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수입소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輸 入〉

올해의 LPG수입소요는 850천톤으로서 전체수요대비는 47%이며, 전년 수입물량 665천톤 대비시는 185천톤이 늘어난 物量이며, 油種別로는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판이 745천톤으로 88%를 차지하고 있고, 부탄이 나머지 12%인 105천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엔 사우디의 供給減量이 없다고 전제할 경우 사우디와의 기존장기도입계약물량 800천톤 감안시 추

〈表 - 5〉 1987년도 精油社別 LPG 생산전망

(단위: 천톤)

		1987 LPG 생산량			1986	1986
		프로판	부 탄	계	생산	대비
정유사	油公	95	255	350	317	10.4%
	湖油	140	276	416	315	32.1%
	京仁	16	23	39	39	—
	雙龍	24	66	90	90	—
	計	275	620	895	761	17.6%
석유화학(HEC)		10	85	95	94	1.1%
합 계		285	705	990	855	15.8%

註: -임가공 계속 실시 전제

-극동석유는 1988 가동전제

-京仁에너지는 60일간 정기보수 실시전제

〈表 - 6〉 油種別 수입소요

(單位: 천톤)

	프 로 판	부 탄	계
需 要	1,000 (55)	810 (45)	1,810 (100)
生 産	285 (29)	705 (71)	990 (100)
輸入 소 요	745 (88)	105 (12)	850 (100)
기 존 도 입 계 약 분	448 (56)	352 (44)	800 (100)
추 가 도 입 소 요	297	△ 247	50

註: ()는 구성비(%), 프로판 수입소요에는 재고증감분 일부 포함.

가도입 소요물량은 프로판은 297천톤이나 부탄은 오히려 247천톤의 공급과잉으로 해외처분이 필요시되고 있

다.

프로판의 추가확보방안으로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ADNOC와의 85~86도입계약을 연장함과 동시 물량을 150천톤 수준으로 증량하고 프로판대 부탄의 輸入比率를 再조정하여 프로판비율을 상향조정 도입하고 餘他產油國 또는 기존계약국가와 프로판 추가도입을 추진함과 아울러 잉여부탄과 스와프를 추진하고, 잉여부탄물량에 대하여는 하절기 프로판에 一部混合공급하고 殘餘分은 外國商社(Trader)에게 처분할 계획이다.

나. LNG需給

국내 無煙炭생산량한계와 石油依存度 감소, 에너지源의 多元化 및 가스사용의 안전성 제고등을 위하여 국내에 LNG를 도입키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20년간 長期도입계약체결과 平澤引受基地건설 및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급망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LNG가 도입·공급되게 된다.

年間으로 총 29항차 1,669천톤이 도입되어 都市가스용으로 142천톤, 發電용으로 1,527천톤이 공급될 계획이며, 도시가스용은 상반기중 수도권지역 7개 도시가스회사의 11個地域 37만가구에 供給하고, 發電用은 平澤과 仁川火力에 LNG수요조정 및 부하조정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 都市가스

LNG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都市가스는 LPG容器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여 그동안 需要신장등 제한분야에서 급성장하여 86년도에 공급가구수가 466千세대로 전년대비 23% 증가하고 공급물량은 53% 증가된 116.7백만㎡에 달하였다.

87년도에는 LNG보급확대 및 煙炭수급안정대책 등의 일환으로 都市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86년대비 약 45% 늘어난 674千세대까지 공급하고, 都市가스會社도 16個社에서 18個社로 늘어날 전망이며, 그동안 나프타와 LPG를 사용하던 도시가스原料도 수도권지역의 都市가스 7個社는 그 原料가 금년 상반기중 LNG로 바뀌면서 공급열량도 기준 7,000, 11,000, 15,000Kcal/m³ 공급기준에서 11,000Kcal/m³로 單一化되고 요금도 현재는 市道別,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LNG 공급지역은 單一料金体制로 전환될 계획이다.

(表 - 7) LNG 需給計劃

(單位: 千噸)

	연초 재고	수 요	공 급			연말 재고
			생산	수입	계	
수급	62	1,669 도시가스용 : 142 발전용 : 1,527	-	1,669	1,669	62
수입 계획		1 / 4 분기 : 5 항차 2 / 4 분기 : 6 항차 3 / 4 분기 : 9 항차 4 / 4 분기 : 9 항차		287.5천톤 345천톤 518.1천톤 518.4천톤		

(表 - 8) 都市가스 보급현황

	1985	1986	1987(전망)
보급세대수 (천세대)	380(23%)	466(23%)	674(45%)
공 급 량 (백만㎡)	76.1(63%)	116.7(53%)	265.6(128%)
원료사용량 (천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프타 LPG 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 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9 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48 142
도시가스 회사수(개)	14	16	18

註: 11천kcal/m³ 기준, ()는 전년대비 증가율

또한 장기적인 都市가스 보급확대계획 일환으로 금년도부터는 도시가스보급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사업자의 공급배관공사비와 需用家の 시설비용을 정부가 基金에서 일부 容許하는등 정책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 事業추진현황

LPG 관련事業으로는 수입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여천수입기지 외에 현재 蔚山에 건설하고 있는 第2LPG輸入基地를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88년 이후

가동케 하고, 備蓄基地 건설도 88년말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동굴공사와 항만공사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공정을 66.7%까지 달성시킬 계획이다.

한편, LPG容器 충전소시설 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 사업도 금년말까지 마무리짓기 위하여 시설기준 제정, 容器保證金 결정, 가스安全管理基金용자고시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LNG 관련사업으로는 먼저 가격측면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의 LNG 도입가격협상과 국내 都市가스會社 및 韓電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공사측면에 있어서는 平澤引受基地의 4號 저장탱크를 완공하는 한편, 首都圈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중 민원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일부구간을 完決함은 물론, 水原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망건설과 中部圈 지역에 대한 LNG 공급배관망건설을 착수하고 91년 이후의 長期施設 건설계획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表 - 9) 가스 長期需給 전망

(단위 : 천톤)

		1987	1988	1989	1990	1991
L	○수 요	1,810	2,110	2,350	2,690	3,085
	┌ 프로판 └ 부 탄	1,000	1,215	1,360	1,485	1,780
		810	895	990	1,205	1,305
	○공 급	1,840	2,126	2,363	2,708	3,108
P	┌ 생 산 └ 프로판	990	1,130	1,190	1,290	1,390
		285	355	405	430	460
	┌ 부 탄 └ 수 입	705	775	785	860	930
		850	996	1,173	1,418	1,718
	┌ 프로판 └ 부 탄	745	872	963	1,061	1,337
		105	124	210	357	381
G	○재고 (지속 일수/총수요)	100(20)	116(20)	129(20)	147(20)	170(20)
	┌ 프로판 └ 부 탄	55	67	75	81	98
		45	49	54	66	72
	○비축 (지속 일수/수입수 요)	48(20)	48(18)	145(45)	175(15)	212(45)
┌ 프로판 └ 부 탄	25	25	119	131	165	
	23	23	26	44	47	
L N G 수 요		1,669	2,014	2,014	2,014	2,014
가스보급률(%)		35	40	44	47	50

2. 向後 展望

우리나라의 가스수요는 高度經濟成長과 함께 90년대까지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先進諸國의 가스보급률이 90%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년도에 10% 수준에서 86년도에는 28%까지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최근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가스수요가 中小도시와 농·어촌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스수요신장시기에 맞추어 LNG도입·공급과 LPG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는 都市가스위주, 中小都市 및 농·어촌은 LPG위주로 가스를 사용하게 되며, 점진적인 가스가격의 국제화로 가스사용부문이 확대되어 냉·난방 및 산업부문에서의 가스수요증가 등으로 91년경에는 그 수요가 500萬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가스보급률도 50%까지 도달될 전망이다.

Ⅲ. 問題點

現 국내가스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大別하면 다음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LPG부문으로 프로판과 부탄의 수급구조 불균형문제라 하겠다.

즉, (表-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PG 수 측면에서는 家庭·商業用 가스수요 급증으로 프로판의 수요증가율이 부탄보다 높아 구성비가 55대45이나 생산 측면에서는 반대로 부탄생산량이 프로판보다 2~3배 많아 결국 수입측면에서 프로판대 부탄의 구성비가 종전 60대40에서 최근엔 90대10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產油國과의 LPG輸入계약상 50대50 또는 60대40의 비율로 수입하게 되는 부탄의 수입이 곤란하게 되는 부탄供給과잉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海外處分 또는 부탄 需要開發이 불가피한 문제이며,

둘째는, LNG부문으로 도입물량대비 都市가스 공급물량이 너무 적고 發電用이 많다는 문제이다.

LNG는 청정연료이므로 家庭·商業用 등의 都市가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자원의 효율적

〈表-10〉 프로판對 부탄의 需給構造 변화

(單位: 톤)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요	프로판	429 (40)	547 (44)	770 (51)	1000 (55)	1215 (58)	1360 (58)
	부탄	634 (60)	687 (56)	750 (49)	810 (45)	895 (42)	990 (42)
	計	1063	1234	1520	1810	2110	2350
생산	프로판	145 (25)	134 (20)	220 (26)	285 (29)	355 (31)	405 (34)
	부탄	430 (75)	529 (80)	635 (74)	705 (71)	775 (69)	785 (66)
	計	575	663	855	990	1130	1190
수입	프로판	320 (61)	421 (69)	550 (83)	745 (88)	872 (88)	963 (82)
	부탄	208 (39)	186 (31)	115 (17)	105 (12)	124 (12)	210 (18)
	計	528	607	665	850	996	1173

註: ()는 構成比(%)

배분, 또는 사용측면에서도 유익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都市가스事業이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수요가 적어 LNG도입초기에는 대부분이 發電용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며, LNG 도입·공급에 따른 비용중 都市가스공급을 위한 배관망투자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용 공급물량이 적을 경우 LNG공급가격이 LPG등 他연료대비 경쟁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셋째는, 都市가스부문으로 도시가스는 가장 현대적이며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형태이나 배관공사에 따른 투자비 過多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都市가스사업자는 공급배관공사에 km當 약 1億원의 자금이 소요되나 투자비대비 수요개발에 따른 판매수익이 저조하여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需用家は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연결 및 시설비의 부담과중으로 현행 국내에너지源間의 가격구조하에서는 수요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都市가스부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과 함께 가격구조측면에서 경쟁성제고가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IV. 推進方向

1. 가스보급 확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키 위해 가정연료의 가스화등 가스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보급방안으로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대도시는 配管網에 의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中小都市 및 농·어촌은 容器에 의한 LPG를 공급하되 특히 서울·仁川등의 수도권지역에서부터 LNG(액화天然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는 中部圈지역에까지 LNG를 점차 확대공급해나갈 계획이며, 가정·상업용 이외에 업무용이나 냉·난방용 및 산업용에까지 가스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需給의 안정화

급증하는 국내가스수요에 대처하고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등을 위하여 수입소요물량의 장기안정적 확보와 輸入先 다변화추진, LPG輸入 및 비축기지 건설을 통한 輸入物量의 원활한 처리와 물량확보는 물론 LNG보급확대를 통한 가스공급의 안정화도모, 부탄의 수요개발 또는 생산억제 등을 통한 油種間 수급 불균형 해소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價格体系的 합리화

가스수요와 보급률의 증가등 가스化時代가 점차 도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가스정책의 수정·추진을 위하여 가스가격을 石油製品가격구조체계에서 분리운영하여 LNG, LPG 및 都市가스가격을 별도로 국제가격과 국내 他경쟁연료가격의 변동에 맞추어 신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연료대체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을 감안한 적정 상대가격이 유지되도록 적의조정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가스種類別 가격이 자유경쟁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안전강화

가스보급확대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안전관리 문제는 타율적인 행정지도와 검사에 의존하던 규제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제반의무강화로써

自體檢査體制로 전환해 나가고, 검사기관의 전문화, 규격의 표준화 등을 추진해 나가며,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LNG 도입사용에 따른 소비자홍보와 유의사항 주지 및 시설의 안전점검도 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취약하고 위험한 시설의 교외이전과 용기충전시설의 현대화와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추진등으로 증대되어 가는 가스物動量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국민의 문화생활증진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V. 맺는 말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스는 편리하고 公善性이 전혀 없는 無公害에너지로서 경제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발생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스보급확대

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귀결이며, 先進社會로 발전해 가는 자연적 추세라 하겠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정책목표를 수급의 안정성 제고와 에너지수입비용의 최소화 에 두고, 대내적으로는 에너지源別 投入부문의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경제의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흐름에 있어서 가스보급 시책도 행정조치등에 의한 인위적인 보급확대시책 보다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입각한 자연적인 보급확대가 바람직하겠으나, 수급안정을 위한 輸入, 備蓄, 가격, 유통등에 대한 일부 규제와 추진시책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추진되는 점을 심분 이해하여 가스사업에 관계된 제반사항에 관련업계의 理解協助와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당부코자 한다. □

□ 산유국단신 □

原油수출감소로 타격받는 멕시코의 경제재건

1,000억달러의 外債를 안고 있는 멕시코의 작년 原油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60%나 감소, 54억달러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油價 하락과, 對美 수출을 위시하여 수출량에 있어서도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멕시코는 수출收入의 60%를 原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原油수출의 대폭감소는 경제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에 타격을 줌으로써 작년 가을 IMF(國際通貨基金) 등으로 부터의 신규융자로 위기를 극복한 同國의 債務償還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計劃·豫算省이 최근 집계한 작년 1~8월의 原油수출액은 35억달러로서 전년同期的 87억달러 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물량에 있어서도 3억600만배럴로 전년同期待보다 10%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對美수출이 美國의 경기후퇴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86년 멕시코의 年間수출액은 '85년 실적인 133억 달러에서 54억달러로 60%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는 경제재건을 위해 外資도입, 國營企業의 민영화등 자유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의 석유의

존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의존의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原油수출의 감소 등으로 '86년 멕시코의 무역흑자액은 '85년의 84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감소, 경상수지는 '85년의 5억 4,100만달러의 흑자로부터 '86년에는 30억달러의 적자로 반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에는 최근의 原油시황 회복 등으로 인해 原油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68억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OPEC의 감산·가격협조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인지 불투명한 데다가, 세계경제의 앞날도 불안정의 요소를 안고 있다.

멕시코는 原油가격 하락과 경제침체로 인해 작년 봄에 外貨가 부족해짐으로써 채무문제가 재연되었다. 그래서 멕시코정부는 작년 6월 IMF등 국제기구와 민간은행에 신규융자를 요청, 9월말에 120억달러의 신규융자를 받게 됨으로써 外債危機를 일단 克服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멕시코 경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의 경제성장률 3.5%의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는 것이다.